

“택함의 축복”

다니엘 12:3

우리 교회가 창립된지 18 년이 되었습니다. 18 년전, 알링톤에서 30 명으로 시작된 우리교회가 지금 1천명 에 가까운 성도들과 96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星光, Shining Star)이라 는 교회 이름을 주시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 12:3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대 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 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 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6)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택함 이 곧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문가의 집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 주목받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선택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예정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걸음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또 직접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노라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

기에, 그는 눈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도, 뒤에서 쫓아 오고 있는 애굽 군대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3-14)

하나님께서서 우리 삶을 예정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담대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수 1:1-2)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앞에 닥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스러운 상황에 좌지우지되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는 막연한 명령 앞에 그는 순종했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한계를 뛰어 넘는 명령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그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쌓고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내 것을 모두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은 곧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벼랑끝으로 나는 세우는 것입니다. 물질도, 직업도, 여러가지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년전,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하며,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눔의 시간

1.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흥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우리 교회가 창립된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했던 은혜, 또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